



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은 11월 16일(목)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방문하였으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낙농제도개편관련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공개질의서 전문]

공 개 질 의 서

- 낙농제도개편 관련 농협중앙회의 입장확인을 위한 -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문제는 위기의 현 낙농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며, 전국의 낙농가족들은 항구적인 제도개편이 되어야 한다는데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낙농인들의 참뜻은 어느 누구보다도 농민의 생산자대표 조직을 자임하는 귀 회가 잘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논의해오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과 관련 귀 회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차원을 넘어 과연 우리 낙농인과 농민의 대표조직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낙농육우협회와 농림부의 낙농제도개편에 대한 합의내용이 알려지자, 그동안 뒷짐만 진 채 먼산만 바라보던 귀 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의 보도와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귀 회의 낙발대책에 대한 입장은 결국 귀회가 기구설립을 도맡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전국단위 제도개편과는 거리가 먼 진흥회 농가부터 직결전환 하겠다는 조합별총량제로서 당초의 정부입장과 무엇이 다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원유거래방식과 관련하여 목장문전도에서 공장문전도로 전환하고 집유비 부담을 조합이나 농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낙농상황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생산자조직인 귀 회가 진정 낙농산업의 백년대계를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귀 회의 입장을 분명하고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농가의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낙농산업발전을 위해 이리이러한 지원과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낙농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하는 청년낙농인들은 명명백백한 귀 회의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귀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

- 최근 알려진 진흥회농가 직결전환을 전제로 한 조합별총량제와 이와 연계된 원유거래방식 개편으로 집유비를 조합, 농가가 부담한다는 입장이 사실인지, 진흥회 농가의 의견수렴을 한 것인지 밝힐 것
- 농림부와 낙농육우협회가 기협의를한 결과에 대한 귀회의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힐 것

2. 농협중앙회가 원유수급조절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면, 원유수급안정기금 조성 등 낙발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들을 제시할 것

- 낙농위원회, 생산자위원회 역할을 농협중앙회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힐 것
- 기구와 관련 농협중앙회가 맡아서 하겠다고 하기 전에, 전국 낙농가 앞에 낙농산업을 위해 원유수급안정기금 조성 등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밝힐 것

3. 농가대표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은 농협중앙회는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 청년분과위원회가 귀회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년분과위원을 ‘딱하신 양반들’이라고 지칭하고, 성명내용에 대한 법적인 대응 운운하면서 농가대표를 폄하했는데,
- 농협중앙회장이 개인비리혐의로 선거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대표들을 비하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밝힐 것

위 질의 내용에 대해 11월 21일(화)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낙발대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귀회에 묻고, 농협개혁과 낙농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6. 11. 16 (목)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장

□ 성명서 □

농협중앙회는 본질을 외면말고, 낙발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지금껏 낙발대책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농협중앙회의 모습은 실망 그 이상이다. 우선 전국단위 제도개편 문제를 바라보는 중앙회의 생각을 종잡을 수 없다. 지난해 7월말 농림부 시안이 발표되었고 낙농육우협회안이 나오면서 지금껏 합의도출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동안 농협 중앙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묻고싶다.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말이다!
2. 최근 알려진 낙발대책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은 단지 낙농위원회나 생산자위원회 역할을 맡아서 해야겠다는 것이다. 또한, 진흥회농가 직결전환을 전제로 한 조합총량제 실시와 이와 연계된 원유거래방식 개편으로 집유비를 조합, 농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라 한다. 애써 전국단위 제도개편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3. 낙농제도개편과 관련 협회와 농림부의 협의결과가 알려지자 부랴부랴 농협중앙회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나 이 또한 여전히 애매하다.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정부안대로 하겠다는 것이며 기구를 도맡아 해야한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다. 전국낙농가들은 중앙회가 지난날 낙농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두 잘 알고 있다.
4. 지난해 9월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조합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당초 정부시안이 아닌 근본대책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음을 명확히 상기하기 바란다. 만약 지금에 와서 입장이 바뀌었으면 왜그런지 밤낮 숨어서 쑥덕공론만 할게 아니라 공개리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농민의 대표조직인 중앙회 답지 않은가.
5. 미래 한국낙농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전국 낙농가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고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중앙회의 올곧은 행태를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외면하고 낙농대책의 본질을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중앙회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6. 11. 6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